

수요기도회

- 2021.11.24(수) 오전11시 -

요한서신강해(03)

“형제 사랑 준수와
세상 사랑에 대한 경계”
(요한일서 2:3~17)

요한서신강해(03)

요일2:3~17

회개와천국복음방송

요한일서 헬라어 직역 (요일 2:3~17)

- (03) 그리고 우리는 이것 안에서, 우리가 [계속]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알아온 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 (04) 내가 그를 안 채 있다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리고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한다.

- (05) 그런데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계속]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하게 된 채 있다. 이것 안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 (06) 그분 안에 [계속] 머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자는, 저분이 걸어다니셨던 것과 같이 역시 그 사람 자신도 그분과 같이 [계속] 걸어다니도록 [마땅히] 해야 한다.

- (07)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질적으로]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쓰고 있지 않다. 오히려 너희가 처음부터(시작부터) [지금도] 가지고 있었던 바 옛 계명을 [쓰고 있다]. 옛 계명은 너희가 들었던 바 그 말씀이다.
- (08) 다시 내가 너희에게 [질적으로] 새로운 계명을 쓴다. 그분 안에서와 그리고 너희 안에서도 참된 것이다. 왜냐하면 어둠은 지나가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참 빛이 이미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 (09) 그 빛 안에 [계속] 있다고 말하고 있는 이이지만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자는 이제 어둠 안에 있는 것이다.
- (10) 자기의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자는 그 빛 안에 머문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걸림돌(거리낌, 실족함, 덜)이 있지 않다.

- (11) 그런데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자는 어둠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둠 안에 걸어다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가 가는 장소를 알지 못한 채 있다. 이는 그 어둠이 자기의 눈들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다.
- (12) 아이들여, 내가 너희에게 쓴다. 왜냐하면 너희의 죄들이 그분의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용서된 채 있기 때문이다.

(13)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다. 왜냐하면 너희가 태초부터 있는 분을 알아온 채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다. 왜냐하면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긴 채 있기 때문이다.**

(14) **어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다. 왜냐하면 너희가 아버지를 알아온 채 있기 때문이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다. 왜냐하면 너희가 태초부터(시작부터) 있는 이를 알아온 채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다. 왜냐하면 너희가 [영적으로] 강하고(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물고 있으며 그리고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긴 채 있기 때문이다.**

- (15)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있어라. 세상 안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고 있어라]. 만일 누구든지 세상을 [계속]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않다.
- (16) 이는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욕망과 눈들의 욕망과 이생(생애, 생계, 살림, 재산)의 허풍땀(자랑)이다. 그것은 아버지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17) 그리고 세상도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의 욕망도 지나가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자는 영원히(그 시대까지) 머문다.



요한서신강해 (03)

요일2:3~17

회개와천국복음방송

명령과 선포

감사와회개(1)

(힘차게 큰 소리로)

1. 주여,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하며 빛 가운데 걸어다니는 성도가 어떠한 성도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 주여,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 주여,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회개 (2)

(힘차게 큰 소리로)

4. 주여,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키는 자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 주여, 새 계명은 옛 계명에서 나온 것으로서 한층 더 승화되고 발전된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 주여, 성도에게도 영적 성장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회개 (3)

(힘차게 큰 소리로)

7. 주여, 성도는 자녀들과 아이들, 청년들과 아버지들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8. 주여, 자녀들과 아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자신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9. 주여, 청년들은 악한 자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회개 (4)

(힘차게 큰 소리로)

10. 주여, 아버지들은 예수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이 곧 선재(先在)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 주여, 성도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 곧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2. 주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형적 없이 사라지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림의결단

(힘차게 큰 소리로)

1. 주여, 이제는 주의 계명을 지키겠나이다.
2. 주여, 이제는 이웃 형제를 사랑하겠나이다.
3. 주여, 이제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겠나이다.
4. 주여, 이제는 악한 자와 싸워 이기겠나이다.
5. 주여, 이제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겠나이다.

명령과선포

(힘차게 큰 소리로)

1.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라고 속여온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꼬드기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3.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4. 이웃 형제를 사랑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멀리할지어다.

말씀의 핵심(1)

(힘차게 큰 소리로)

1. 형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 거하며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였구나.
2.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자신이 장차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자로구나.
3.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의 이름으로서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으며,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구나.

말씀의 핵심(2)

(힘차게 큰 소리로)

4.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는구나.
5.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어느날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날이 오게 되는구나.